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

Trends in Cambodian ICT marke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ICT
Companies

노일수 (I.S. Roh) 모바일사업전략연구팀 선임연구원
노유나 (Y. Ro) 경제분석연구팀 연구원

- I. 서론
- II.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
현황
- III.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
- IV. 결론 및 시사점

캄보디아는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아 정보통신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빈곤 극복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며, 사회간접자본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낙후된 캄보디아가 선진국의 원조나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 없이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고 KOICA와 KOEXIM의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의 비중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캄보디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보통신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각 정부기관의 역할 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I. 서론

캄보디아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급속히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협력 파트너이다. 1997년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까지 한국은 캄보디아 방문 관광객 1위, 캄보디아 누적 투자액 2위국, 2008년 무상원조 2위 국가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매우 호의적인 상황이다[1].

또한 캄보디아는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통신 성공 사례를 자국의 미래 발전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특성상 급속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꾸준히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는 가장 먼저 이동통신 가입자가 유선통신 가입자를 넘어선 국가로 민간 기업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빈국이자 사회주의 국가로서 예상되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나 폐쇄적인 시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형 원조모델에 대한 연구와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장 진출 관련 사전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즉 한정된 예산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여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찾기 위한 연구가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상당 수준 진행되었고 관광, 건설,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 분야의 조사들도 활발히 진행되었다[2].

그러나 양국 정부 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관심과 긴밀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행된 개발협력 사업이 많지 않고 현재까지 발굴된 사업 아이템도 다양하지 않다. 또한 캄보디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의 수도 적고 관심 범위도 매우 한정된 실정이다. 적은 인

구와 낮은 구매력에서 기인한 협소한 시장, 낙후된 인프라, 포화 상태의 이동통신 시장, 전력 부족에 따른 인터넷의 불안정성, 미흡한 법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캄보디아 통신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 캄보디아의 협소한 시장과 낮은 전략적 가치만을 고려하자면 경제성이나 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세안 시장의 관문이자 가장 우호적인 전략적 파트너의 하나로서 캄보디아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캄보디아의 정보통신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기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 현황

1. 통신 인프라 현황

UN에서 발표한 2012년 전자정부 순위에서 캄보디아는 190개 대상국가 중 155위를 차지하였다(〈표 1〉 참조)[3]. 이는 10개 아세안 역내 국가 중에서 9위로 미안마 다음으로 가장 낮은 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를 의미한다. 심지어 전자정부 순위와 발전지수는 2010년과 비교해 더 낮아진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일인당 국민소득 760달러(2010년 기준)의 아세안 최빈국 캄보디아의 열악한 통신 인프라 현황을 볼 때 그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하겠다.

캄보디아는 유선통신, 이동통신, 인터넷 등 전 부문에서 아시아 평균과 세계 평균에 한참 뒤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가장 발달한 이동통신 분야조차도 가입자 비율이 57.65명으로 아시아 평균 91.64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 비율의 경우 아시아 평균이 29.33

명인데 비해 캄보디아의 경우 1.26명에 불과하며 유선 인터넷 가입자 비율은 아시아 평균이 6.98명인데 비해 캄보디아는 0.14명에 불과하다. 광케이블 백본망을 정부의 예산이 아닌 외국의 원조자금이나 민간 기업의 투자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현 인프라 상황이 단기간에 쉽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표 1〉 2012년 아세안 회원국 통신 인프라 현황

(단위: 백명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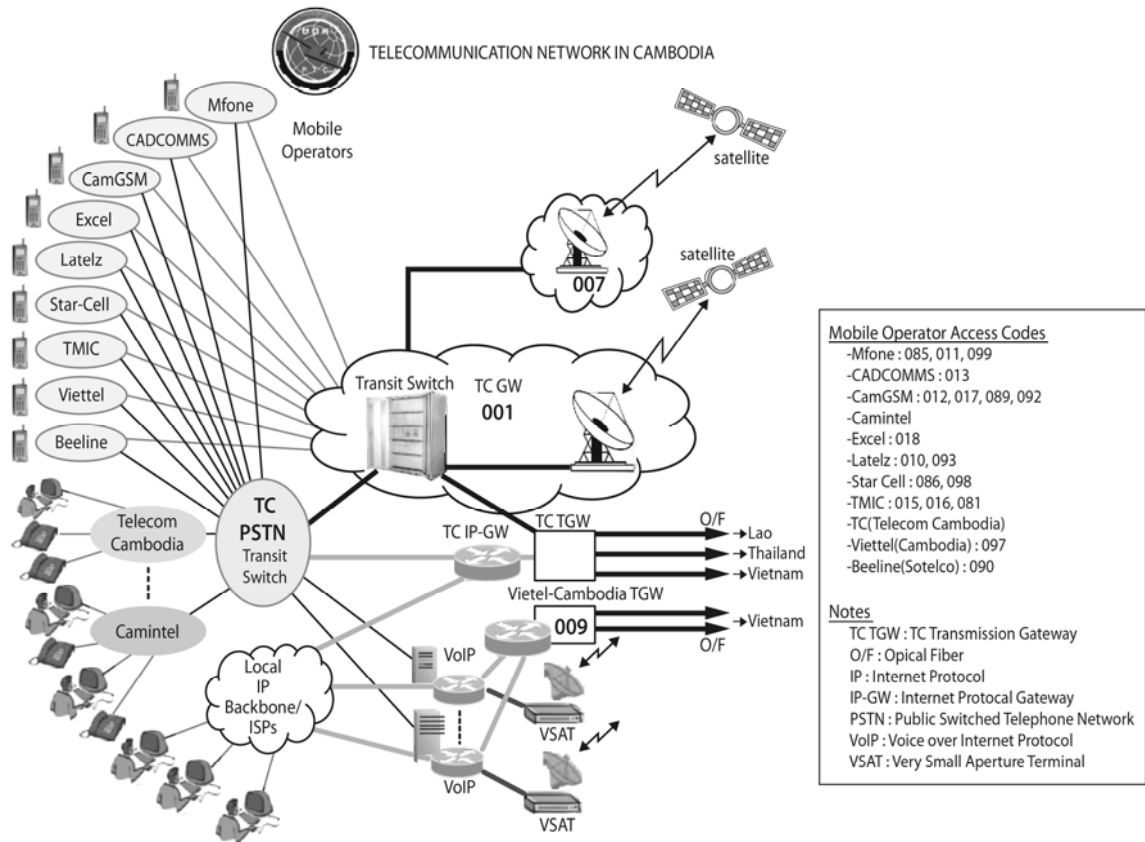
| 국가 | 인터넷 사용자 | 유선 회선 | 이동통신 가입자 | 유선인터넷 가입자 | 유선 브로드밴드 |
|--------|---------|-------|----------|-----------|----------|
| 싱가포르 | 70.00 | 39.00 | 143.66 | 25.22 | 24.72 |
| 말레이시아 | 55.30 | 16.10 | 121.32 | 20.01 | 7.32 |
| 브루나이 | 50.00 | 20.03 | 109.07 | 25.26 | 5.44 |
| 베트남 | 27.56 | 18.67 | 175.30 | 7.80 | 4.13 |
| 필리핀 | 25.00 | 7.27 | 85.67 | 3.93 | 1.85 |
| 태국 | 21.20 | 10.04 | 100.81 | 3.34 | 3.87 |
| 인도네시아 | 9.10 | 15.83 | 91.72 | 0.73 | 0.79 |
| 라오스 | 7.00 | 1.66 | 64.56 | 0.26 | 0.19 |
| 캄보디아 | 1.26 | 2.54 | 57.65 | 0.14 | 0.25 |
| 미얀마 | 0.22 | 1.26 | 1.24 | 0.05 | 0.03 |
| 아시아 평균 | 29.33 | 15.06 | 91.64 | 6.98 | 5.41 |
| 세계 평균 | 32.79 | 18.87 | 88.53 | 9.33 | 8.73 |

〈자료〉: UN 전자정부 지수 2012를 중심으로 재정리[3]

2. 정보통신 시장 현황

캄보디아의 통신 시장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다양한 통신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해외 통신 사업자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진출

1) 본 자료는 2010년 자료로 2012년 현재와 비교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9개로 1개 많게 나타나 있고 유선통신 사업자가 5개 중 2개만 나타나 있으나 전체 통신 시장 구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여 본고에 제시한다.



(그림 1) 캄보디아 통신 시장 구도¹⁾[4]

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시장은 총 8개의 사업자가 있다. 과거 9개의 회사가 있었으나 Smart Mobile과 Star Cell이 합쳐지면서 현재는 8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그림 1) 참조[4].

통신 시장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이동통신 부분 1위 사업자인 Viettel의 경우 베트남 기반의 통신사이고, 2위 사업자인 CamGSM의 경우 현지 기업인 로열 그룹과 룩셈부르크 기반의 Millicom International Cellular의 합작회사이다. 3위 사업자인 Hello Axiata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반의 통신사인 Telekom Malaysia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의 자회사이다. 4위 사업자인 Latelz의 경우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인 Timeturns의 자회사이다. 5위 사업자이자 Mfone으로 알려져 있는 Camshim의 경우 태국의 Shin Satellite PLC와 캄보디아 MPTC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의 합작회사이다. 6위 사업자인 Beeline의 경우 러시아 기반의 Vimpelcom이 Sotelco의 지분을 90% 가지고 있다. 그 외에 CADCOMMS와 GT-TELL이 2006년과 2008년에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였다.

2011년 4월 현재 시장 점유율은 Viettel이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CamGSM이 23%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심카드 기준으로 1,269만 명에 달한다(〈표 2〉 참조). MPTC에 따르면 2011년 8월 기준

〈표 2〉 이동통신 사업자 현황[5]

| 순위 | 사업자 (상표명) | 가입자 수(심카드 기준) |
|----|----------------------|---------------|
| 1 | Viettel(Metfone) | 5,723,825 |
| 2 | CamGSM(Mobitel) | 2,903,279 |
| 3 | Hello Axiata(Hello) | 1,184,284 |
| 4 | Latelz(Smart Mobile) | 1,118,673 |
| 5 | Camshin(MFone) | 562,723 |
| 6 | Sotelco(Beeline) | 500,000 |
| 7 | CADCOMMS(qb) | 80,118 |
| 8 | GT-TELL(Excel) | 40,541 |
| 합계 | | 12,691,610 |

〈표 3〉 유선통신 사업자 현황[5]

| 순위 | 사업자(시스템) | 가입자 수 |
|----|-----------------------------|---------|
| 1 | Viettel(Methome, PSTN, WLL) | 402,123 |
| 2 | Telecom Cambodia(TC, PSTN) | 30,385 |
| 3 | Camshin(Mfone, WLL) | 13,498 |
| 4 | Camintel(PSTN) | 9,252 |
| 5 | CamGSM(WLL) | 6,574 |
| 합계 | | 461,832 |

으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413만 명을 넘어서 10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유선 통신망이 낙후되고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통신 시장의 경우 총 5개의 사업자가 있으며 2011년 4월 현재 Viettel이 87%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TC가 7%의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참조). 전체 가입자는 46만 명에 그치고 있다. 유선 통신망의 경우 프놈펜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많은 농촌 지역이 유선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전화는 001의 Telecom Cambodia, 007의 Royal Telecom International, 009의 Viettel 등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은 총 37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표 4〉 인터넷 가입자 현황[5]

| 순위 | 사업자(시스템) | 가입자 수 |
|----|------------------------------------|---------|
| 1 | Latelz(Mobile Internet) | 273,735 |
| 2 | CamGSM(Mobile Internet) | 162,762 |
| 3 | Sotelco(Mobile Internet) | 91,497 |
| 4 | Viettel(Fixed and Mobile Internet) | 60,579 |
| 5 | Mfone(Mobile Internet) | 57,950 |
| 6 | Hello(Mobile Internet) | 52,264 |
| 7 | CADCOMMS | 14,483 |
| 8 | GT-TELL(Mobile Internet) | 6,827 |
| ⋮ | ⋮ | ⋮ |
| 37 | Mat Co, Ltd | 2 |
| 합계 | | 679,281 |

2011년 4월 현재 16개의 ISP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4 참조). VoIP의 경우 29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15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는 총 390개가 있으며 그 중 222개가 프놈펜에 있으며, 나머지 168개가 프놈펜 이외의 지역에 있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카페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문맹인구가 32% 이상에 달하는 등 열악한 교육 여건 탓에 인터넷 카페가 대도시에서 집중돼 있는데 크메르어의 컴퓨터화가 마무리되지 않아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광케이블 네트워크는 총 22,380km이며, 이중 Viettel Cambodia가 16,000km로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CFOCN(Cambodia Fiber Optic Cable Network)이 5,180km, Telecom Cambodia가 1,200km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2 참조). 특기할 점은 백본망이 모두 MPTC 관리하에 있으나 정부 예산이 아닌 외국인투자 민간 통신 사업자가 투자 및 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ICT 산업은 하드웨어 분야의 경우 한국, 중국,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된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컴퓨터 공급, 수리 및 프로그램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어 문서화 등 소규모 아웃소싱 비즈니스도 형성되고 있으나 기술 역량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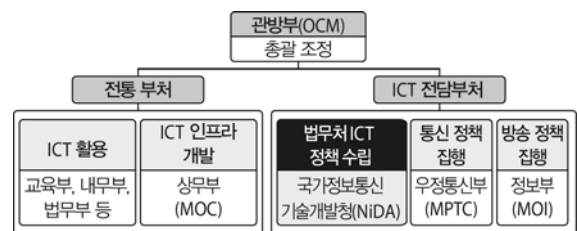
(그림 2) 국가 백본망 현황[5]

미미한 수준이며, 비즈니스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작 및 관련 하드웨어의 제공 등을 수행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현지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단계이다.

3. 정보통신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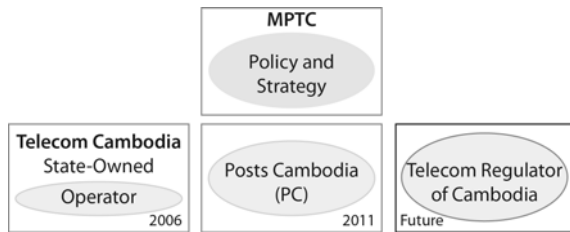
캄보디아 ICT 정책수립과 범부처 ICT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NiDA: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이다. 관방부 산하기관으로서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책집행 기능 없이 정책수립 기능만 가지고 있어 실제로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외 원조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책임부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그림 3 참조).

캄보디아의 우정 및 통신정책 수립과 집행은 우정통신부(MPTC)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정책 수립과 집행, 규제, 우정 및 통신 사업 수행 등이 있다. 이미 통신 서비스 기능은 2006년에 분리하였고, 우정 서비스 기능은 2011년에 분리하였다. 또한 현재 작성 중인 통



(그림 3) 부처별 정보통신 관련 업무 분장

2) NiDA의 ICT 정책 방향은 크게 6개 부분으로 1) 국가 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기여 정책, 2) 법적, 제도적 기본체계 정책, 3) 인력양성 정책, 4) 콘텐츠 정책, 5) 인프라 정책, 6) 기업 육성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ICT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우정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 51% 인정 및 2012년 100% 외국인 투자법인 허용 등 매우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림 4) 우정통신부 통신 부문 혁신 전략[5]

신법안에 따르면 통신 부분의 개혁을 위해 향후 정책과 전략 수립 기능 이외에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³⁾(그림 4 참조).

정보부는 방송정책 수립 및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무부는 ICT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 교육부와 내무부, 법무부 등의 부처가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캄보디아 중앙 부처에 전자정부 등 기본적인 정보통신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4.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사업 현황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2010년까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총 3억 5,686만 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하였다. KOICA의 무상원조는 6,797만 달러, KOEXIM의 유상원조는 2억 2,889만 달러가 지원되었다(〈표 5〉 참조)[6].

KOICA의 무상원조 사업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은 아직까지 한 건도 진행된 바 없다(〈표 6〉 참조). 2012년 현재 KOICA와 캄보디아 관방부(OCM: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가 ICT 마스터플랜 수립 사

〈표 5〉 캄보디아 지원 총액(1991~2010)

(단위: 만 달러)

| 지원 총액 | 무상 | 유상 | 총계 |
|-------|-------|--------|--------|
| | 6,797 | 28,889 | 35,686 |

〈자료〉: ODA Korea, 캄보디아 자료를 정리[6]

3) 통신법안은 정책결정 기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도 추진하기 어려운 매우 혁신적인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표 6〉 무상원조 연도별 실적(1991~2010)

(단위: 만 달러)

| 연도 | 지원규모 | 연도 | 지원규모 |
|------|-------|------|---------|
| 1991 | 2,9 | 2001 | 105,6 |
| 1992 | - | 2002 | 176,5 |
| 1993 | 3 | 2003 | 234,1 |
| 1994 | 0,8 | 2004 | 334,1 |
| 1995 | 3,1 | 2005 | 581,3 |
| 1996 | 24,7 | 2006 | 632,9 |
| 1997 | 183,4 | 2007 | 869 |
| 1998 | 30,1 | 2008 | 1,311,4 |
| 1999 | 29,7 | 2009 | 676 |
| 2000 | 65,3 | 2010 | 1,533 |

〈자료〉: ODA Korea, 캄보디아 자료를 정리[6]

업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정도이다. 유상원조 사업은 2001년 2,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GAIS: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을 수행하였고, 2006년 3,097만 달러의 예산으로 지방행정정보망(PAIS: Provinci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사업을 수행하였다(〈표 7〉 참조). 이

〈표 7〉 유상원조 연도별 실적(2001~2010)

(단위: 백만 달러)

| 승인연도 | 사업 명 | 승인액 |
|------|------------------------------|--------|
| 2001 | 행정전산망 구축 사업 | 20 |
| 2002 |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 27,67 |
| | 캄포트-트라팡로포 도로 개보수 사업 | 17,05 |
| 2005 | 크랑폰리강 수자원 개발 사업 | 26,7 |
| 2006 | 지방행정정보망 확충 사업 | 30,97 |
| | 3번 국도 개보수(2차) 사업 | 36,9 |
| 2008 | 시엠립 하수처리 및 하천 정비 사업 | 29,96 |
| | 국도 및 지방도 개보수, 캄포트 우회도로 건설 사업 | 30 |
| 2009 | GMS 북서부도로 개선 사업 | 29,94 |
| 2010 | 몽골보레이덤 개발 사업 | 18,7 |
| | 지방도로망 개선 사업 | 21 |
| 계 | 11건 | 288,89 |

〈자료〉: ODA Korea, 캄보디아 자료를 정리[6]

후 아직까지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사회 인프라와 경제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되었으나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현지 수요 발굴의 어려움과 낮은 우선순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 규모는 전체 사업 대비 1% 내외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국가 특성상 하드웨어 부분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후관리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사업 담당자의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개발협력 사업으로 제공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결국은 방치되면서 국가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책자문이나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현지 담당자의 인적 역량을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현지 정부의 상위 정책에 반영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결과물 없는 무의미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DB나 JICA의 정책자문 사업이나 컨설팅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현지 전문가들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소수의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III. 캄보디아 정보통신 시장 진출 시 고려할 요인

1. 통신 시장 사업 환경

캄보디아의 정보통신 시장은 우리 민간 기업이 단기간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다. 인구가 적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으며⁴⁾,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고

4) 손혁상·유현상(2010)은 캄보디아는 경제 분야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취약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

〈표 8〉 캄보디아 통신 시장 활성화의 문제점

| 순위 | 문제점 |
|----|---|
| 1 | 전기 부족: 프놈펜 지역조차 전부 커버하지 못하며, 농촌 지역의 전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 |
| 2 | 높은 가격의 인터넷 요금: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음 |
| 3 | ISP의 낮은 커버리지: 프놈펜과 대도시 지역에 한정 |
| 4 | 로컬 콘텐츠 부족: 웹 사이트 개발 능력 부족과 코메르어 전산화의 문제점 |
| 5 | 사용자의 경험 부족: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ICT 전문가들의 기술 역량이 여전히 부족 |

〈자료〉: P. Sorasak and C. Kosona(2010)을 재정리[7]

유통 구조가 발달되지 않아 시장 진입의 매력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통신 서비스 시장은 기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조차 극심한 경쟁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시장 진입과 관련하여 우선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1) 전기 부족, 2) 높은 컴퓨터와 주변기기 가격 및 인터넷 요금, 3) ISP의 커버리지, 4) 로컬 콘텐츠 사용 문제, 5) 사용자 경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표 8〉 참조)[7].

또한 외국 기업 입장에서 이미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통신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통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와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MPTC가 통신 사업자 간(인터넷 및 이동 사업자) 합병을 제안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투자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캄보디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형적인 소비시장으로 선진국의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둘째, 낙후한 인프라와 심각한 부정부패로 국가 투명성이 매우 낮으며, 셋째, 소비시장이 전 인구의 10%가 거주하는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이 열악하고 유통 구조가 취약하여 시장 확대가 어렵고, 넷째, 장기간의 내전으로 민간 저축률이 매우 저조해 자체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여 외국 자본 및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섯째, 최빈국으로서 생필품이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 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계층 간 및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1].

〈표 9〉 투자 관련 이슈

| 순위 | 투자 관련 이슈 |
|----|--------------------------------------|
| 1 | 음성 트랙픽과 위성 기반 IP 접속 관련 국제 게이트웨이 |
| 2 |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 확보 및 합작 투자 사업 형태로의 참여 방안 |
| 3 | 외자도입법(foreign investment law) 재정비 |
| 4 | 이동 시장의 가입자 포화 |
| 5 | 망과 설비 시장에서의 중국의 신흥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현황 |
| 6 | 사업자 면허 발급 관련 정부의 법적 부재 |
| 7 | 부진한 통신 시장 자유화 |
| 8 | 취약한 백본망으로 인해 WLL의 확장이 어려움 |
| 9 | 불안정한 규제 체계 |
| 10 | 캄보디아의 낮은 국민 소득 |

〈자료〉: S. Sem, 2011을 중심으로 재정리[8]

다음의 투자 이슈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표 9〉 참조)[8].

그러나 캄보디아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아도 인구의 증가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통신 시장 확대를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투자기회 요인은 정보격차 해소, 국제전화 접속 개선 및 전국 커버리지 구축 등을 들 수 있다(〈표 10〉 참조)[8].

그리고 외국 기업이 캄보디아 통신 시장에 진입하여 점유율을 확장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국 망 커버리지, 차세대 서비스 제공, 부가 서비스 제공, 저렴한 요금, 사회적 관계 유지, 신속하고 쉬운 서비스, 단순성, 고객 친화적 요금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11〉 참조)[8].

〈표 10〉 캄보디아 통신 시장 투자기회 요인

| 순위 | 투자기회 요인 |
|----|--------------------------------------|
| 1 | 농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
| 2 | 국제전화 접속 개선(육상 케이블만 있고 해저 케이블이 없음) |
| 3 | 국제전화 접속 개선에 따른 IP 트랜짓 수요 급증 |
| 4 | 전국 커버리지 달성을 위한 무선 접속 촉진과 와이맥스에 대한 고려 |

〈자료〉 S. Sem, 2011을 중심으로 재정리[8]

〈표 11〉 시장 진입 성공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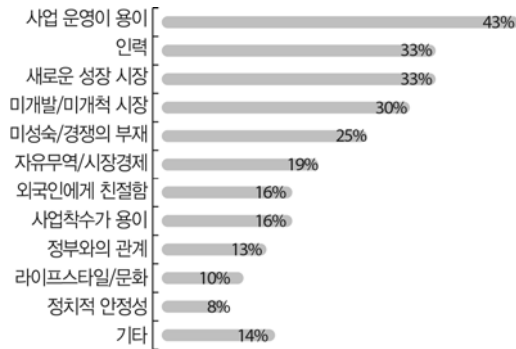
| 순위 | 시장 진입 성공 요인 |
|----|---|
| 1 | 전국적인 망 커버리지: 가입자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 2 | 차세대 서비스: 신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입지를 강화 |
| 3 | 부가 서비스 및 추가 혜택: 뉴스, 음악, MMS, 이메일, LBS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 4 | 저렴한 요금: 음성 요금은 기존 사업자보다 저렴해야 함 |
| 5 |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음 |
| 6 | EQM(Easier, Quicker, More): 고객이 보다 쉽고,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빠르고, 고객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 7 | 단순성: 고객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 8 | 고객 친화적 요금 구조: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효용에 대해 고객이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고객 친화적 요금 구조를 개발 |

〈자료〉 S. Sem, 2011을 중심으로 재정리[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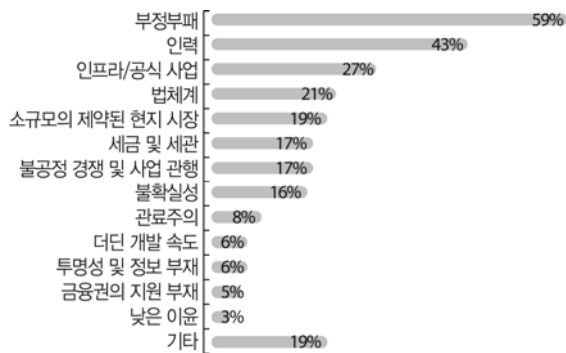
2. 사업 수행 환경

캄보디아는 외국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캄보디아만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요인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캄보디아 시장의 긍정적인 면은 1) 사업 운영이 용이하고, 2) 고학력 인력, 3) 새로운 성장 시장, 4) 미성숙 시장, 5) 시장 경제, 6) 외국인에 친절, 7) 창업의 용이함, 8) 정부와의 관계설정 용이 등을 들었다(그림 5) 참조). 즉, 세제나 법적인 문제가 단순하고, 젊은 노동자들이 주어진 직무에 비해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개방경제이며, 외국인에게 100% 지분을 인정하는 것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9].

장애요인으로서는 1) 부정부패, 2) 관리자금 인력 부족, 3) 인프라 및 공공재 부족, 4) 관련 법 미흡, 5) 협소한 국내 시장, 6) 세금과 관세, 7) 불공정 경쟁 및 사업 관행 등이 제시되었다. 개도국들 평균보다 높은 심각한 부



(그림 5) 캄보디아 시장 사업 수행의 긍정적 요인[9]



(그림 6) 캄보디아 시장 사업 수행 관련 장애 요인[9]

정부패,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인력 수준의 미스매치, 전기와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불안정성, 관련 법체계 및 하위 규정의 미흡 등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장애요인들 대부분이 지적되었다(그림 6) 참조[9].

IV. 결론 및 시사점

한동안 캄보디아의 정보통신 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시장으로 간주되었고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협소한 시장과 극심한 경쟁, 취약한 기반시설과 낙후한 인프라, 법체계의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 진입을 통한 수익 창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아세안 시장의 관문이자 우리나라의 가장 우호적인 전략국

가의 하나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었고 협력관계도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정보통신 시장은 이동통신 부문만 유일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나 사업자 간 경쟁이 극심하고 인터넷 부문은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단기간에 활성화 되기에는 인프라 구축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통신 분야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취약한 유선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업 측면에서 하드웨어 부분은 외국산 중고제품을 판매, 수리하는 소매점이 증가하고 있고 영세 아웃소싱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통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기 부족, 높은 인터넷 요금, 낮은 서비스 커버리지, 로컬 콘텐츠 확충, 사용자의 경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외국 기업이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기회 요인으로 농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국제전화 접속, 전국 커버리지 달성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또한 캄보디아 시장은 외국 기업의 투자에 매우 우호적이고 사업 착수나 운영이 쉽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점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은 2006년 이후 거의 없는 편이다. 기존 사업에 대한 논란으로 후속사업 발굴이 어려워지고 도로와 수자원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지면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 성공 사례를 자국의 발전모델로 삼고 우리나라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에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원조 역량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캄보디아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조 사업으로 제공된 결과물에 대한 관리 능력이 부족한 캄보디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물량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과 지식 및 인적 자원이 연계된 장기적 관점에서의 원조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중국이나 일본에 맡기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나 장기적 운영 시스템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책수립 및 컨설팅 등은 캄보디아의 인적 역량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사업의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판단된다.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가 한국형 정보통신 성공모델을 활용하여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한국적 시장 환경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겠다.

용어해설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란 UN 가입국인 세계 192개국에 대하여 전자정부 지수를 3개의 하위지수(온라인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자본 지수)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세계 선진국 대비 자국의 전자정부 발전방향 및 발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선진국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 정부기관이 ② 개도국의 경제 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임.

약어 정리

| | |
|-------|--|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 MPTC |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 |
| CFOCN | Cambodia Fiber Optic Cable Network |
| NiDA |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 |
| OCM |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
| GAIS |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 PAIS | Provinci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

참고문헌

- [1] 손혁상, 유현석, “대캄보디아 ODA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전략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4-19, 연구자료 1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2] 이창재, 정재완, 방호경,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연구자료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3]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2 – E-Government for the People,” 2012.
- [4] V. Chun and D.N. Townsend, “Rural ICT Policy Advocacy, Knowledge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1st draft 1.0, ADB, 2010.
- [5] MPTC, “Current Status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of Cambodia,” 2011.
- [6] <http://www.odakorea.go.kr/oz/support/asia/Cambodia.jsp>
- [7] P. Sorasak and C. Kosona, “.kh Cambodia,” Digital Review of Asia Pacific 2009-2010, 2010.
- [8] S. Sem, “Case Study of Cambodia Telecoms Markets,” NiDA, 2011.
- [9] Southeast Asia Globe, “Cambodia, Foreign Business Leaders Survey,” 2011.